

거룩한 땅에서

2026년 3월
72-1번째 편지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2)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4)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지난 2025년 3월 4일, 이곳 정부로 인해 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은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교회가 언제 다시 열릴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모두 마쳤고, 이제는 법원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편에는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견디게 하시며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셨음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첫 수련회

먼저 감사한 소식은 저희 가정이 말테페 교회를 섬긴 이후 처음으로 교회 수련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된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선교하던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에베소 지역을 한 번도 방문해보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장소가 에베소 지역 근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도들에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장시간 운전을 하며 이동해야 했지만 함께 간다는 사실 자체가 큰 기쁨이었습니다. D사역자 가정도 찬양으로 말테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여러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고 수련회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폐쇄된 이후 약 1년 만에 모두가 함께 모여 소리 높여 찬양을 드릴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G집사님의 감사

수련회를 위해 직장에 휴가를 내고 참석한 G집사님의 이야기도 나누고 싶습니다. 집사님은 휴가를 받은 첫날 직장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다. 사실 이번 수련회 날짜도 G집사님이 휴가를 낼 수 있는 시기에 맞추어 정한 것이었고, 다른 성도들 역시 그 일정에 맞추어 어렵게 휴가를 내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상치 못한 해고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큰 당황과 안타까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수련회 마지막 날, G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해 오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된 상황을 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모습을 보며 저희 모두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키워 가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말테페 교회의 첫 수련회를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련회를 열어 보니 사역자를 포함해 모두 9명이 함께하는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이번 수련회가 너무 좋았다며 가을에도 다시 수련회를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의 바람처럼 앞으로 자주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휴가를 받아도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마음 편히 시간을 내어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A형제의 성장

또 한 가지 감사한 소식은 A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형제는 교회가 폐쇄된 이후 인터넷을 통해 처음 만나 교제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형제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교회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형제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A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지 약 10개월 정도 되었고

거룩한 땅에서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디모데후서 2:2)

기도제목

1. 말테페 교회 소송의 결과를 위하여

현재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희 가정과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회 일꾼을 위하여

최근 인근 교회를 방문하면서, 현지 지도자를 세우는 일과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희 가정이 추방을 당하게 될 경우, 현재로서는 교회를 돌볼 현지 일꾼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신실한 현지인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고, 저희가 그들을 세우는 사역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현재 두 명의 집사님에게 설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잘 배우고 준비되어 앞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모임을 위해

매일 저녁 기도회와 주중에 진행되는 일대일 성경공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화상을 통한 주일예배가 인터넷으로 진행되지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가정을 위하여

지난 1월 장모님의 장례 가운데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시고 기도와 위로를 보내 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원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현재 매주 성경공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주일에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중 성경공부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경을 네 번이나 통독하고 다섯 번째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순서대로 읽었지만 이번에는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며 읽는 방식으로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꼼꼼하게 적어 두었다가 성경공부 시간에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들을 나누며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최근에는 이곳 언어로 번역된 “기독교 강요” 책을 구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말씀과 신앙 안에서 계속 성장하여 앞으로 이곳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교회 방문 예배

최근 저희 가정과 친분이 있는 인근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테페 성도들 모두가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몇몇 성도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현지인 목회자의 설교와 찬양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고, 예배 후에는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섬기는 교회는 서로 다르지만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형태의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말테페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함께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과정 속에서 신앙의 시야가 더 넓어졌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붙들고 계신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